

추억의 합격기

[1989년도 제33회 행정고시 일반행정직 합격]

忍 苦 的 意 味 를 되 새 겨 보 며



황 성 태

『학력사항』

- 국립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
- 피츠버그대학교외교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황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 경기도 화성시 부시장
-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실장
- 경기도 용인시 부시장
- 경기도청 경제투자실 실장
- 경기도청 문화관광국장
- 제33회 행정고시 일반행정직 합격

I. 들어가는 말

이제는 막이 내렸다. 관객들은 모두 떠나가고 텅 빈 공간에 혼자 앉아 있는 기분이다. 이렇게 찰라적인 한편의 연극을 위하여 슬한 세월동안을 고뇌와 방황으로 점철되었다고 생각하니 허탈한 느낌마저 밀려오지만 그 준비과정에서 나의 내면적인 모습은 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어졌으리라 믿기에 결코 슬프지만은 않다. 추운 겨울밤처럼 기나 긴 수험생활 동안 意慾이 저하되거나 意志가 흐려질 때면 『考試界』에 게재되는 앞서간 선배들의 발자국을 읽어 보면서 희망과 용기를 얻고 마음을 정리하던 시절이 생각한다. 그 많은 분들이 나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인내와 성실로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과정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책망하곤 하였다.

선행자의 지나온 자취를 담은 이야기들이 이 순간에도 암흑의 동굴속에서 자신들의 형상을 다듬고 있는 동행자들에게 일조가 되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데 이 글이 그러한 역할을 얼마나 할지 하는 회의심과 아울러 지나온 생활의 모습들을 나 혼자만 고이 간직하고 싶은 욕망에서 합격기 請託을 망설여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와 같은 상황에서 불확실

하지만 미래를 향해 힘찬 도전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거나 오랜 수험생활속에서 약간 지쳐버린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지나온 몇년 동안의 이야기를 그저 겪은 그대로 솔직하게 적어 보고자 한다.

II. 피어나는 하나의 작은 소망

내가 태어난 곳은 읍으로부터 약 십리 정도 떨어진 20여 가구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조그마한 산골이었다. 대부분 시골출신들의 어린시절이 그러하듯이 철없던 시절은 정말 즐거움으로 가득했었다. 여름이면 아침, 저녁으로 소를 몰고 산으로 가서 친구들과 뛰어 놀았고 둥근달이 뒷동산에 떠오르면 동네아이들과 함께 솥박꼭질을 하였다. 중학교를 마치고 읍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름을 알고 있는 대학이 한 두개일 정도로 대학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대학에 진학할 필요성이 있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었고 대학진학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7급시험에 응시하려고 몇 권의 책을 구입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2학년 때 나에게,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해야하는 상황이 야기되었고 마산에서 십 여일 정도 머물렀는데 그 당시 시골생활만 줄곧 해온 나에게, 도시사람들의 바쁘게 움직이는 생활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으며, 그리하여 퇴원하면 이제부터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여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떠올랐고 그때부터 대학진학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3학년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여 진주에 있는 國立慶尙大學校에 입학하였다. 대학 1학년 때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학교 생활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자퇴

직전까지 갔으나 아법지의 간곡한 만류로 그러한 최악의 사태는 야기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신적 방황을 계기로 나의 지적 욕구는 더욱 강렬해졌으며, 또한 1학년 가을학기 동안 같은 하숙집 선배형님의 도움으로 고시에 대한 꿈과 동경이 어렴풋하나마 생기게 되었다. 그 형은 고시준비를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었으며, 나에게도 한번 도전하기를 권유하였다. 이때부터 합격하면 좋겠다는 지극히 추상적인 고시에 대한 동경이 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나아가 합격은 나의 작은 소망이 되었고 고시에 대해 강렬하게 집착하게 된 것 같다.

III. 혼란스러웠던 시간들

1981년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혼자서 해 보았지만 시골 고등학교를 다녔던 탓에 기본지식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될리가 만무하였다. 경제학, 행정법 등을 읽어 보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어려웠다. 그러나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 재미가 있었고, 처음이니까 당연하리라 여기며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다. 그 다음해에 1차 시험을 치루어 보았지만 예상대로 낙방하였다. 경제적인 문제로 계속하여 학교에 다닐 수가 없어 이듬 해에 입대하려고 휴학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정평편이 어려운 관계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독서실에 자리를 정하고 하루하루를 알차게 메꾸어 나갔다. 그해의 여름은 무척이나 더워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비오듯이 등줄기를 타고 내렸지만 기술문제를 풀어보니 합격의 가능성이 엿보여 더위에 아랑

못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박차를 가했으며 대구에서 시험을 보았다. 시험을 치르고 나서 다소 불안한 가운데 차분하게 기다렸으나 결과는 예상을 영락없이 뒤엎었다. 점수를 알아보니 커트라인에서 0.5점차이었다. 씩스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꼭 합격하리라는 약간의 자신감이 생겨났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복학을 할 수 없어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평소 잘 아는 S교수님께 편지로 말씀을 드렸더니 도와주시겠다는 답신이 와서 일단 복학하기로 하였다. 올해만큼은 실패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였다. 11명이 생활하는 고시실에 입실하여 그 곳에서 공부하고 잠자며 식사는 옆 강의실에서 아침, 저녁으로 수업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수 지어 먹었다. 강의도 동일한 건물에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날은 밖에 한 번도 나가지 않을 만큼 긴 수험생활 동안 가장 열성적으로 공부한 기간이 아닌가 한다. 체력은 급격하게 떨어져 한계적 단계까지 다달았지만 이번에 1차에 실패한다면 학교도 중퇴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기에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계속 밀어부쳤다. K교수님의 정성스런 정신적·물질적 보살핌은 많은 의미를 던져주었고 고시실의 동료들도 일심동체가 되어 조성해 준 공부하는 분위기는 학습의 촉매제 역할에 충분하였다. 시험날짜가 임박해질수록 긴장감과 초조감이 노도처럼 암습해 왔지만 공부의 절대 시간량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 마산으로 내려가 집근처에 위치한 작년에 다녔던 독서실에 자리를 정하고 조금은 여유있는 생활을 하였다. 발표일짜는 아직 멀었지만 考試界에 실린 문제를 맞추어 보니 합격이 손에 잡힐 것 같기도 하였다. 발표 몇일전 학교로부터 합격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최종합격이라도 한 것 처럼 기뻐서 어쩔줄 몰랐다. 2차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난생 처음으로 서울의 모습을 접하게 되었는데 모든 것이 신비롭고 아름답게 보였다.

2차시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 날까지 시험장에 남아 있는 것이 내년의 시험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선배의 이야기를 따르며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견지했으나 점수는 형편없었다. 하지만 경제학과 행정법에서 과락을 넘긴 것이 위안이 되었다.

다시 2학기가 시작되었고 캠퍼스에도 가을이 찾아 들어 축제가 시작되었지만 주위의 분위기와 관계없이 2차준비에 몰두하였다. 처음에 무슨 과목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다가 우선 행정법, 경제학부터 시작하여 정책학, 정치학 등을 공부하고 국민윤리는 12월부터 공부하기가 지루한 시간을 이용하여 틈틈히 보았다. 공부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을리 없겠지만 돌이켜 생각하니 그때의 공부방법은 주먹구구식이었던 것 같다. 내용을 이해하기 보다는 암기하려고 했는데 그런 방식이 효율적인 수가 없었으며, 3월이 되어 공부량을 체크해 보니 개략적인 흐름은 파악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시험을 치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다. 남은 몇 개월 동안 힘껏 몸부림쳐 보았지만 무엇인가 모자라는 느낌이 들었고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4일간의 시험을 치루고 집으로 돌아와 차근차근 시험문제를 생각해 보니 그런대로 커다란 실수없이 답안작성을 한 것 같아서 어쩌면 행운의 여신이 나에게도 찾아올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였다. 하루하루를 가슴조이며 발표날을 기다렸지만 합격자 명단에는 나의 이름이 없었다. 그날 저녁에 친구, 후배들과 함께 술에 만취되어 버렸는데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

을 연달아 몇 잔 들이켰더니 앞으로 꼬꾸라지고 말았다. 의식을 차려보니 다음날 저녁 무렵이었고 모든 것이 허무했으며, 허탈한 감정만이 가슴에 가득했다. 계절은 어김없이 가을이 되었고 캠퍼스와 주위 산들의 단풍과 더불어 나의 방황도 시작되었다. 4학년 2학기라 오후에는 수업 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까운 바닷가로 가서 바다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해가 지면 돌아오곤 했다. 바다는 너무나 광활하여 그 앞에 선 나 자신은 너무나 왜소해 보였고, 잡다한 생각과 번민을 순간적이거나 잊을 수 있게 하였으며, 심지어 가슴깊이 파고드는 가을 바다의 바람은 나의 온 정신을 정결케 하여 후련한 마음이 들기까지 했다. 졸업을 앞두고 나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으며 “그런대로 열심히 하였다.”라는 친구들의 위료가 없지는 않았지만 가시적인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는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고 자신이 서글퍼지기까지 하였다. 이런 혼돈을 마무리 시켜주는 것이 2차성적이었는데 행정법이 38점으로 과락이긴 했으나 커트라인에서 0.2점 차이였기에 내년에는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다시 공부할 의욕이 생겨 점차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졸업을 하던 해에도 1차시험은 무사히 통과하였지만 2차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다시 해를 넘기게 되었다. 1987년 5월에 서울로 자리를 옮겨 고시원에 자리를 잡고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준비를 했다. 2차시험을 몇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여 보니 큰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막상 시험에 임하고 보니 다른 과목들은 무난하게 넘어 갔지만 정치학 문제(집단이론과 비판)에 크게 당황하여 결과는 또 다시 실패작이었다.

IV. 정신적 전환은 결실의 바람으로

이제는 시험에 대한 일종의 반발감 같은 것이 생겨났다. 가정 형편도 좋지 못하데 취직하라는 주위 사람들의 간곡한 권유도 있었지만 나에게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처럼 느껴졌고 이미 시작한 일인 만큼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마무리를 짓고 싶었다. 내년에는 집을 떠나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경제적 뒷받침이 전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민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친구가 대학원 시험을 본다가에 같이 응시하였는데 뜻밖에도 합격하였다. 몇 년만에 처음 느껴보는 성취감이라 정말 즐거웠고 의미있는 소중하고 가슴에 와 닿았으며 이것을 잘 활용하여 고시공부에 있어서 하나의 도약대로 삼아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2월이 되어 上京하였으며 모든 것이 새로웠다. 여태까지 고시준비 한답시고 혼자서만 공부하다가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흥미로웠고 지적욕구도 상승되는 것 같아서 시험공부는 그만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싶었다. 학교근처에 있는 독서실을 거처로 정하고 아침 일찍 도서관으로 와서 저녁 늦게 귀가하였는데 혼자서 생활할 때와는 달리 신선한 기분으로 피곤함을 느끼지 못한채 약간 들뜬 기분으로 3월~4월을 보냈다. 5월이 되자 행시에 대한 미련이 끈질긴 잡초의 생명력처럼 되살아나 다시 응시하기로 결심하고 1차시험 준비를 하였다. 약 한 달 가량 집중적으로 하여 9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이것은 평소와 다른 강한 의지력과 집중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운도 상당히 작용한 것 같다.

2차시험은 건강이 악화되어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여 그냥 포기할까 하다가 응시해 보았

지만 결과는 냉정하였다. 그러나 내년에는 꼭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감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하였는데 강의를 들어보니 혼자서 공부했던 산만한 지식들이 질서정연하게 논리가 잡혔고 이미 합격한 대학원 친구들, 특히 L군으로 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얻었다. 여기에 첨가해 두어야 할 것이 이러한 여러가지 요소들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思考上의 轉換을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고나 시각상의 전환은 기존의 短見에서 탈피하여 보다 깊이 있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고찰, 접근할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여겨진다.

12월부터 대학원 동료들과 그룹스타디를 하였는데 하나의 내용이라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좋았고 아울러 다소 지쳐버린 상태에서 상호 동기유발이 되어 더욱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았다. 1989년 3월과 더불어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학교생활에 충실하였다. 1학기가 끝난 것이 6월 중순이었고 그룹스타디 멤버들이 모두 함께 같은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시험일짜를 체크해 보니까 약 50여일 남아 있었는데 공부량은 당혹스러울 만큼 부족한 것 같았다. 다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은 그지없이 편하기 조차 하였으며, 그저 기도하는 자세로서 성실하게 생활하겠다는 의지가 補強되었다.

시험일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차분하게 내용을 압축시켜 나갔고 예상문제를 뽑아 정리해 보았다. 첫날 국민윤리의 문제부터 무척 당황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경제학 시험을 치루고 나서 까지도 그럭저럭 합격의 점수는 나올 것 같았는데 정치학과 심리학에서 결정적인 뒤서리를 맞는 기분이 들었다. 웬만한 문제가 출제된다면 합격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시험

직전의 느낌이었는데 역시, 고시가 나와는 인연이 없구가 하는 생각이 치솟았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들 역시 문제가 어려웠다고 하여서 약간의 희망을 갖고 발표날을 기다렸다. 이윽고 발표날이 되었다. 고시원에 있는 친구 S군이 명단을 보고 합격했다면 기숙사로 전화연락을 해 준다가에 4시까지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약간의 불길한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기숙사에 있지 못하여 마음을 정리하기로 하고 한강에 바람이나 쏘이러 나갔다. 기분이 착잡해지면서 온갖 상념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황혼 무렵의 한강을 바라보면서 그 동안의 고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물거품처럼 사라지는구나라고 생각하니 참담하기까지 하였다. 합격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함과 동시에 같이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합격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뜻밖에도 나의 합격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돌아서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앞을 가리기 시작하였다. 불안한 가운데서 3차시험을 보았지만 성적은 61.09점으로 괜찮은 점수였다.

V. 마무리 짓는 말

시험준비 기간이 나에게서는 정말로 추운 겨울밤처럼 길고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합격을 얻고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과거가 이상하리만큼 아름답게만 장식되어 가슴속 깊이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한편의 추억처럼 여겨진다.

합격을 하고난 이후 가장 깊이 깨우쳐지는 진실이 있다면 세상일에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순리가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한 가지 뜻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근면하게 임한다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과응보였다.

하나의 자그만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것에 상응하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한 대가를 치루지 않고는 반대급부를 원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소중함과 보람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술하면 결국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근면·성실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주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다. 합격을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공부량이기 때문이다.

둘째, 인내심이다. 한 두번 응시해 보고 결말이 나지 않으면 쉽게 방향을 전환해 버리는데 고시합격할 사람이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나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시험이라는 고지를 쉽게 정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기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는 탐이 마지막 돌 하나를 더 얹지 못해 세상 사람들의 눈길속에서 영원히 묻혀 버리는 未完成의 탐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식이 필요하다. 행정고시는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자기가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서 의식이 정립 되면 자질구레한 어려움은 쉽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공부도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사는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서두르지 말고 게이름을 떨리하면서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생활해 나간다면 합격의 기쁨은 결코 멀리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이 영광이 있기까지는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의 念願, 願望, 苦痛, 期待, 그리고 도움이 있었다. 이 좁은 지면을 빌어 그러한 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감이 있지만 많은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끝까지 뒷바라지를 하시느라 온갖 정성을 아끼지 않았던 어머니와 큰 누나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과 이 영광을 함께 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부시절 어려울 때마다 정신적인 활력을 북돋아 주셨던 NK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은사님, 대학원 시절에 항상 자신감을 고취시켜 주신 L교수님 등 여러 은사님, 가까운 곳에서 항상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고등학교 친구 S, K와 대학친구인 HA, S, CHOI군 및 선후배, 기타 나를 격려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끝으로 함께 스터디를 하며 동고동락하였던 M, L, CH군 등도 庚午年 새해에는 모두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